

『유식분량결』 「사분상연문」의 연구

—『사분의극락사기』 「사분상연문」에 의탁해서

박인성
동국대학교 교수

I. 서언

II. 염위(染位)에서의 4분상연

1. 첫째 논사의 견해

2. 둘째 논사의 견해

III. 정위(淨位)에서의 4분상연

1. 동체 4분의 경우

1) 규기의 견해

2) 원측의 견해

2. 동취이체 4분의 경우

1) 규기의 견해

2) 원측의 견해

IV. 결어

요약문

선주의 『유식분량결』 「사분상연문」은 4분 간의 상연관계를 살펴보는 문(門)이다. 상연(相緣)이란 서로 소연연이 된다는 뜻이다. 선주는 심 또는 심소 단독의 4분을 뜻하는 동체 4분의 경우와, 심과 심소 상호 간의 4분을 뜻하는 동취이체 4분의 경우로 나누어 이 상연관계를 짚어 본다. 염위(染位)에서는 4분에 각각 분한이 있어서 동체 4분의 경우든 동취이체 4분의 경우든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선주는 이에 대해 규기를 따라 두 논사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위(淨位)에서는 동체 4분의 경우든 동취이체 4분의 경우든 상연관계가 성립하는데, 선주는 이를 규기의 두 가지 학설과 원측의 네 가지 학설을 인용하며 소개하고 나서, 동체 4분의 경우는 후3분이 자분(自分)을 포함한 여타의 분(分)들을 모두 연한다는 삼통연사(三通緣四)가, 동취이체 4분의 경우는 심과 심소의 후3분이 각각 자분을 포함한 심과 심소의 모든 분을 연한다는 삼개연사(三皆緣四)가 규기와 원측의 정설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선주는 염위와 정위의 4분의 차이를 규기는 친득(親得)과 신득(新得)의 개념을, 원측은 정(正)과 겸(兼)의 개념을 끌어들이

밝혀내고 있다는 점에서 두 논사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상연, 동체사분, 동취이체사분, 삼통연사, 삼개연사, 친득과 신득, 정과 겸

I. 서언

일본 헤이안(平安) 전기(前期)의 유식논사 선주(善珠, 723-797)는 규기(窺基)의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의 주석서 『법원의경(法苑義鏡)』, 혜소(慧沼)의 『성유식론요의등(成唯識論了義燈)』의 주석서 『유식의등증명기(唯識義燈增明記)』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그는 또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4분설을 모두 모아 『유식분량결(唯識分量決)』(이하 『분량결』)이란 논서를 저술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 『분량결』의 「사분상연문(四分相緣門)」을 다룬다. 4분을 여러 주제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이 『유식분량결』의 전반부는 순서대로 「석명결의문(釋名決疑門)」, 「입분부동문(立分不同門)」, 「행상이설문(行相異說門)」, 「대소이승행상부동문(大小二乘行相不同門)」, 「능소량과문(能所量果門)」, 「내외분별문(內外分別門)」, 「능연소연문(能緣所緣門)」, 「삼량분별문(三量分別門)」, 「사연분별문(四緣分別門)」, 「동종별종문(同種別種門)」, 「개합부동문(開合不同門)」, 「유식해석문(唯識解

釋門)」, 「일용다용문(一用多用門)」, 「사분상연문(四分相緣門)」, 「제문분별문(諸門分別門)」 등 15장으로 되어 있다.

선주는 이 「사분상연문」에서 염위(染位; 인위)와 정위(淨位; 과위果位)에서의 4분의 상연관계를 다룬다. 염위에서는 심 또는 심소의 4분 사이에도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또 심과 심소 사이에도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 점을 짚어내야 정위의 4분 간에 성립하는 상연관계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주는 인위의 4분을 다룰 때는 동취이체의 4분을, 과위의 4분을 다룰 때는 동체의 4분과 동취이체의 4분을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다. 인위 4분의 상연관계를 다루는 부분에서 동취이체 4분만을 고려하는 것은, 동체 4분의 관계를 다른 문에서 논할 때, 4분은 각각 일정한 분한이 있어서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염위의 4분을 다루는 전반부에서 선주는 규기의 두 가지 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두 설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 두 설 모두 결국 염위에서는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정위의 4분을 다루는 후반부에서 선주는 동체 4분의 경우든 동취이체 4분의 경우든 규기와 원측의 설을 순서대로 제시하며 서술하고 있다. 규기는 곧바로 올바른 설을 제시하거나 여러 설을 열거할 때는 뒤에 가서 어느 설이 더 낫다고 판정을 내리지만, 원측은 대체로 여러 설을 단순히 열거할 뿐 판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설이 원측의 설인지 파악하기 힘들 때가 많다. 그런데 4분의 상연관계에 있어서는 도증(道證)의 말을 통해 원측의 견해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견해가 원측의 견해인지 파악하기 위해 선주의 논의를 주의 깊게 따라가 볼 것이다.

다른 문(門)과 달리 이 「사분상연문」에는 탈문(脫文)이 있어 중산의 『사분의극략사기(四分義極略私記)』(이하 『극략사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극략사기』는 선주의 『분량결』을 따라 순서대로 문을 설정하고 있지만 내용은 순서대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은 선주의 논의의 순서를 따라가며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의 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극략사기』의 도움을 받아 이 탈문의 내용을 보충하며, 또 선주의 논의를 보강하며 필자의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II. 염위(染位)에서의 4분상연

4분의 상연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첫째 염위와 정위, 둘째 동체와 동취이체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염위와 정위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염위에서는 정위에서와는 달리 4분 사이에 분한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건분은 상분을, 자증분은 건분과 증자증분을, 증자증분은 자증분을 연하는 분한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한은 상박(相縛)과 견박(見縛)에 매여 있어서, 염위에서는 정위에서와 같이 이러한 박(縛)을 벗어나서 연하는, 가령 건분이 자증분을 연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없다. 둘째 동체와 동취이체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염위에서는 비록 동체 4분 간에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혹시 정위에서처럼 동취이체 4분 간에는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염위와 정위, 동체와 동취이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할 때,

염위에서는 동체 4분 간에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염위의 상연관계를 다루는 전반부에서는 동취이체 4분의 경우만 살펴보면 된다.

선주는 후반부에서 정위를 다룰 때는 규기와 원측의 견해를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지만, 염위를 다룰 때는 원측의 견해를 들고 있지 않고 규기를 따라 첫째 논사와 둘째 논사의 견해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1. 첫째 논사의 견해

선주의 『분량결』에는 편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탈문이 있어서¹⁾ 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중산의 『극략사기』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논사의 견해를 나열하는 이 대목에서 둘째 논사의 견해가 언급되어 있을 뿐 첫째 논사의 견해가 보이지 않는데, 중산은 그의 『극략사기』 「사분상연문」에서 선주의 체재를 그대로 따라가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논사의 견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중산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문] 이 문의 취지는 무엇인가? [답] 일취(一聚)의 심왕과 심소가 서로 상연(相緣)하는 뜻과 상연하지 않는 뜻을 밝히는 것이 이 문의 취지이다.

[문] 이 4분이 상연하는 일에는 몇 가지의 위(位)가 있는가? [답] 두 가지의 위(位)가 있다. 하나는 염위(染位)에서 서로 연하는 일을 말하고, 다른

1) 『唯識分量決』(『大正藏』 71, p.446上), “四分相緣門也恐有脫文惜哉.” “사분상연문이다. 아마도 탈문이 있는 듯하다. 안타깝다.”

하나는 정위(淨位)에서 서로 연하는 일을 말한다.²⁾

심왕과 심소가 서로 소연으로 삼을 수 있는 상연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먼저 염위와 정위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선주는 염위에서는 심과 심소 사이에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첫째 논사와 둘째 논사의 견해를 순서대로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염위(染位)에 의거할 때, 우선 안식(眼識)의 일취(一聚)에는 심과 심소의 4분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상연할 수 있는가? [답] 논 제8권에 두 논사의 견해가 있다. [문] 첫째 논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 논에 이르길, “동취(同聚)의 이체(異體)는 전전상망(展轉相望)하기에 오직 증상연(增上緣)만이 있다. 상응(相應法)들은 의탁하는 본질(本質)이 같고 상연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한다.³⁾

중산은 『성유식론』을 따르면서 염위에서는 심과 심소가 전전상망하기에, 오직 증상연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염위에서는 심과 심소 사이에 서로 소연으로 삼는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산은 이 증상연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어서 다음과 같이

2) 『四分義極略私記』(『大正藏』 71, p.469下), “問: 此門意如何? 答: 明一聚之心王心所互以相緣不相緣之義, 此門意也. 問云, 此四分相緣有幾位耶? 答: 有二位. 一說染位相緣, 二說淨位相緣也.”
3) 『四分義極略私記』(『大正藏』 71, p.469下), “問: 約染位, 且眼識一聚之中有心與心所四分, 更互得相緣耶? 答: 論第八有二師義. 問: 初師說如何? 答: 論云, 同聚異體展轉相望唯有增上. 諸相應法所杖質同不相緣故.” “若”을 ‘更’으로 수정.

말한다.

[문] 이 문의 취지는 무엇인가? [답] 같은 취[同聚]란, 우선 안식의 일취(一聚)이다. 다른 체[異體]란, 심왕의 체와 촉(觸) 등의 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체라고 한다. 심왕은 청색을 연하는 심소를 장애하지 않으며, 심소는 청색을 연하는 심왕을 장애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연이 있다. 심왕과 심소는 동일한 청색을 소연으로 삼는다. 촉(觸)이 수(受)의 소연이 된 다거나, 수(受)가 촉(觸)의 소연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연연은 없다. 심왕과 심소는 이에 준해서 고찰할 수 있다.⁴⁾

심과 심소 간에는 능연소연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장애하지 않는 증상연 관계만 성립하는 것은 심과 심소가 다같이 동일한 대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⁵⁾ 만약 심이 심소의 대상을 연하고 심소가 심의 대상을 연한다면 심과 심소는 동일한 대상을 지향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해서 선주는 있을 수 있는 물음을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선주의 『분량결』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문] 만약 그렇다면, 우선 가령 제8심왕은 본질이 없는 심소의 상(相)을 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소연이라고 하는가? [답] 동일한 소연에는

4) 『四分義極略私記』(『大正藏』 71, p.469下) “問: 此文意何? 答: 同聚者, 且眼識之一聚也. 異體者心王體與觸等體各別故異體. 心王不障心所緣青色, 心所不障心王緣青色, 故有增上緣. 心王心所以一青色爲所緣. 不以觸爲受之所緣以受爲觸所緣, 故無所緣云也. 心王心所准而可察.”
5) 지향성 및 지향하는 대상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Drummond, J.J.(2003), *The structure of intentionality*, In D. Welton(ed.) *The New Husserl — A Critical Reader* (pp.65-92),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참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한다. 5식의 심왕 및 심소 등이 그렇듯이. 둘째는 상사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한다. 제8식이 변현한 것 및 제6식이 연한 과거·미래 등이 그렇듯이. 비록 본질이 없을지라도 타변(他變)에 의탁하지 않고 각각 자변(自變)이 상사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한다. 반드시 심왕이 심소의 경(境)을 연해서 생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이르는 것은 아니다.⁶⁾⁷⁾

중산은 상연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 만약 상연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유가론』의 “심과 심소법은 소연이 동일하다”는 견해에 위배된다. 또 대중부의 견해와 같은 것이 된다. 대중부가 이르길, “심과 심소 여섯은 모여서 서로

상연하기 때문이다”고 한다.⁸⁾

선주는 『유가론』의 ‘소연이 동일하다’는 설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그런데 『유가론』의 ‘소연이 동일하다’는 설이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동일한 소연’에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전5식은 제8식이 변위(變爲)한 것 곧 본질을 소연연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동일한 소연’만을 인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주가 규기를 따라 든 예처럼 가령 제8식과 이와 동시의 심소들 곧 촉(觸)·작의(作意)·수(受)·상(想)·사(思)는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대상을 지향할 수 있으며, 또 제6식의 과거의 대상이나 미래의 대상을 지향하는 경우는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없는 것이어서 지금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본질이 있는 대상을 지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상종의 논사들은 ‘소연이 동일하다’라는 『유가론』의 정의를 ‘소연이 상사하다’로 확대해서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선주와 규기에 따르면 ‘소연이 동일하다’든 ‘소연이 상사하다’든 심과 심소는 각각의 대상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이 심소의 대상을, 심소가 심의 대상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6) 『唯識分量決』(『大正藏』 71, p.446上), “問: 若爾, 且如第八心王不能緣心所之相即無本質, 如何名爲同一所緣? 答: 同一所緣有二, 一質一故名同一, 如五識心王心所等, 二相似故名同一, 如第八心所變第六緣過未等, 雖或無本質, 不託他變, 各各自變相似名同一, 不要心王緣心所之境生名爲同一.”

7) 이에 해당하는 중산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四分義極略私記』(『大正藏』 71, p.469下), “問: 若爾, 第八心王不緣心所相, 即無本質, 何云同一所緣耶? 答: 疏云, 同一所緣總有二義, 一云, 所杖質同名爲同一, 如五識等俱心所法必同本識所變質生故, 二相似名同一, 即第八俱心心所法及第六識緣過未等, 或雖無本質不託他變, 各各自變相似名同一, 不要心王緣心所之境生名爲同一也, 云云.” [문] 만약 그렇다면, 제8심왕은 심소의 상분[相]을 연하지 않으니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소연이 동일하다고 이르는가? [답] 소에 이르길, ‘소연이 동일하다는 것에는 모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의탁하는 본질이 동일하기에 소연이 동일하다고 한다. 가령 5식 등과 이와 동시의 심소법은 반드시 본식이 변현한 본질을 같이해서 [同] 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상사(相似)하기에 소연이 동일하다고 한다. 즉 제8식과 이와 동시의 심과 심소법, 그리고 과거나 미래 등을 연하는 제6식 등은 혹은 비록 본질이 없어서 타변(他變)에 의탁하지 않더라도, 각각 자변(自變)이 상사하기에 소연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심왕이 심소의 경(境)을 연해서 생하는 경우만을 소연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한다.” ‘杖’을 ‘杖’으로, ‘問’을 ‘問’으로 수정.

8) 『四分義極略私記』(『大正藏』 71, p.469下), “問: 若許互相緣有何失? 答: 達『瑜伽論』心心所法同一所緣云義, 又同大眾部義, 大眾部云, 心心所六集互相緣故.”

9) 『瑜伽師地論』(『大正藏』 30, p.279中), “彼助伴者, 謂彼俱有相應諸心所有法, 所謂, 作意觸受想思, 及餘眼識俱有相應諸心所有法, 又彼諸法同一所緣非一行相, 俱有相應一一而轉.” 안식과 상응하는 심소들, 즉 촉·작의·수·상·사 같은 변행심소 및 선이나 불선 심소들이 안식과 동시에 일어날 때 “소연은 동일하고 행상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2. 둘째 논사의 견해

선주는 규기를 따라 첫째 논사의 견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둘째 논사의 견해도 제시하는데, 이 논사의 견해는 건분에 의거할 때는 상연하지 않지만 상분에 의거할 때는 상연한다는 것이다.

둘째 논사가 이르길, “건분에 의거해서 상연(相緣)하지 않는다고 하고, 상분에 의거해서 상연의 뜻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 풀이해서 이르길, 건분에 의거해서 동취(同聚)의 심과 심소는 상연하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동시에 다른 건분을 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위(因位)에 의거한 것이다. 불(佛)은 그렇지 않다. 만약 상분에 의거하면, 심왕과 심소는 서로 연한다. 왜 그런가? 제8심취에는 5법이 있다. 종자(種子)에 의거해서 이를 본질로 삼고, 영상(影像)의 종자를 변현한다. 즉 본질을 소소연(疎所緣)으로 삼고, 자기의 영상(影像)을 친소연(親所緣)으로 삼는다. 심체(心體)도 또한 그러하다. 자기가 변현한 종자를 친소연(親所緣)으로 삼고, 심소가 변현한 종자를 소소연(疎所緣)으로 삼는다.¹⁰⁾

앞에서 우리는 첫째 논사의 견해에서 심과 심소는 상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둘째 논사는 이렇게 상연하지 않는 것은 심과 심소 곧 작용들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상연하지 않는 것이지, 즉 건분에

의거할 때 상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상분에 의거할 때는 상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상분은 현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제8식과 이와 동시의 심소들의 상연관계를 보면, 심소들은 제8식의 종자를 친소연으로 삼고, 자기의 영상을 소소연으로 삼으며, 역도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소소연이란 말을 쓴 것은 제8식과 이와 동시의 심소들은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요약하면, 염위에서 심과 심소는 상연하지 않는다. 첫째 논사든 둘째 논사든 심과 심소가 서로 상연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심과 심소는 현행하는 동일한 대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III. 정위(淨位)에서의 4분상연

선주는 정위에서의 4분의 상연관계를 다루는 이 후반에서는 규기와 원측의 설을 열거하며 서술한다. 선주는 두 논사를 따라 염위에서와는 달리 과위에서는 동체의 4분 간에도 상연하고, 동취이체의 4분 간에도 상연한다고 본다. 선주를 따라가며 동체의 4분 간에 성립하는 상연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동취이체의 4분 간의 상연관계를 밝혀보겠다.

10) 『唯識分量決』(『大正藏』 71, p.446上), “第二師云, 或依見分說不相緣, 依相分說有相緣義等. 云云. 解云, 或依見分同聚心心所說不相緣. 無俱時他見分故. 此依因位. 佛即不爾. 若依相分王所互緣. 所以者何. 第八心聚有其五法. 依止種子以爲本質變影像種. 即用本質爲疎所緣, 以自影像爲親所緣. 心體亦爾. 自所變種爲親所緣, 心所所變爲疎所.”

1. 동체 4분의 경우

먼저 규기는 삼통연삼(三通緣三)·삼통연사(三通緣四) 두 가지 설을, 원측은 건통연삼(見通緣三)·건통연사(見通緣四)·삼통연삼·삼통연사 네 가지 설을 제시하지만, 그들이 모두 삼통연사를 정설로 삼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놓고 선주의 서술을 살펴보겠다. 건통연삼(見通緣三)은 건분이 자분(自分)을 제외한 여타의 분을 모두 연한다는 것을, 건통연사(見通緣四)는 건분이 자분을 포함한 4분을 모두 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통연삼(三通緣三)은 후3분이 각각 자분을 제외한 여타의 3분을 모두 연한다는 것을, 삼통연사(三通緣四)는 후3분이 자분을 포함한 4분을 모두 연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선주는 이 『사분상연문』에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 『제문분별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 불과(佛果)에서 4분이 상연하는 일은 어떠한가? [답] 규기 논사의 두 가지 설이 있고, 원측 논사의 네 가지 설이 있다. 그런데 규기 논사의 정의는 3분이 4분 모두를 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측 논사의 네 가지 설 중 네 번째가 이것과 같다. 『요집』에서 판정해서 이르길, “이것을 정의로 한다. 왜 그런가? 무루심 등의 용(用)은 두루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¹¹⁾

원측의 네 번째 설 곧 삼통연사는 규기의 두 번째 설이다. 원측을 따르는 도증이 『성유식론요집』에서 이 설이 정설이라고 했으니 원측이

11) 『唯識分量決』(『大正藏』 71, p.446下), “問: 佛果四分相緣云何? 答: 基師二說, 測師有四說. 然基師正義三通緣四也. 測師四說之中第四同此. 『要集』判云, 以此爲正. 所以者何? 無漏心等用周遍故. 云云.” ‘三’을 ‘二’로 수정.

정설로 삼고 있는 설은 규기와 마찬가지로 삼통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주가 서술하는 규기의 두 가지 설과 원측의 네 가지 설을 살펴보면, 이 설들이 어떻게 삼통연사로 귀결하는지 알아보자.

1) 규기의 견해

선주는 규기의 견해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은 정위(淨位)의 상연관계에 대해 밝힌다. [문] 동체(同體) 4분이 어떻게 상연하는가? [답]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규기의 설에 이르길, “동체의 4분 중 건분은 자증분을 연할 수 있고 또 증자증분도 연할 수 있다. 자증분도 또한 상분과 건분을 연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오직 불과(佛果)에 있는 자에게만 일어나고, 다른 위(位)에 있는 자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이 취지에 의하면, 여타의 3분은 서로 모든 법을 연할 수 있다. 변연(遍緣)이기 때문이다.”고 한다.¹²⁾

선주는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앞의 문들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제문분별문』에서 규기는 두 가지 학설, 곧 삼통연삼과 삼통연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문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규기가 정설이라 생각하는 두 번째 견해를 서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건분과 자증분을 들어, 건분은 상분은 물론이고 자증분과 증자증분을, 자증분은 증자증분과 건분은 물론이고 상분을 연할 수

12) 『唯識分量決』(『大正藏』 71, p.446中), “後明淨位者: 問: 同體四分如何相緣? 答: 此有二釋. 一基說云. 同體四分中, 見分得緣自證亦緣證自證. 自證亦得緣相見分. 此唯在佛果, 餘者不能. 此中意顯, 餘之三分互緣一切法, 名遍緣故.”

있다¹³⁾고 말하고 난 뒤 여타의 3분은 서로 모든 법을 연합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술은 자기자신을 배제하는 삼통연삼을 지칭하는 것인지 자기자신을 포함하는 삼통연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중산은 규기를 따라 두 견해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다.

[문] 동체에 의거해서 4분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 소(疏)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해석에 의하면, 3분이 4분을 모두 연합한다. 둘째 해석에 의하면, 3분이 (자신을 제외한 여타의) 3분을 모두 연합한다. 첫째 견해의 취지에 의하면, 건분이 상분·견분·자증분·증자증분을 연합하고, 내지 증자증분도 또한 그러하다. 거듭 이 취지에 의하면, 후의 3분이 4분을 모두 연합하기 때문에 삼통연사(三通緣四)라고 한다. 둘째 견해의 취지에 의하면, 건분이 자기를 제외한 여타의 3분을 연합하고, 증자증분도 또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을 연합한다.¹⁴⁾

규기에 따르면, 후의 3분 곧 견분과 자증분과 증자증분은 자분(自分)을 포함한 다른 모든 분들을 연합할 수 있다. 즉, 건분은 인위에서는 오직 상분만을 연합했지만, 과위에서는 자증분과 증자증분도 연합할 수 있

고 또한 자분도 연합할 수 있다. 자증분은 인위에서는 견분과 자증분을 연합했지만 과위에서는 상분도 연합할 수 있고 자분도 연합할 수 있다. 증자증분은 인위에서는 오직 자증분만을 연합했지만, 과위에서는 견분과 상분도 연합할 수 있고 자분도 연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위에서도 이렇게 4분이 유지된다면 인위의 4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주는 규기가 이 지점에서 친득(親得)과 신득(新得)의 개념을 끌어들이며, 인위와 과위의 4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고 말한다.

[문] 여타의 3분이 모두 모든 법을 연합한다면, (이 분들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답] 3분에는 차이가 있으니, 전에 얻은 것[前所得]은 예전 그대로 얻은 것[親得]이고, 여타의 새롭게 얻은 것[新所得]은 영상을 변형해서 얻은 것[影得]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¹⁵⁾

필자는 위의 인용문의 친득(親得)을 ‘예전 그대로 얻은 것’으로, 새롭게 얻은 것인 영득(影得)을 ‘영상을 변형해서 얻은 것’으로 이해했는데, 다음과 같은 중산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 여타의 3분이 모든 법을 모두 연합한다면, (이들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답] 전에 얻은 것[前所得]은 예전 그대로 얻은 것[親得]이고, 여타의 새롭게 얻은 것[新所得]은 영상(影像)을 변형해서 얻은 것이기

13) 인위에서 건분은 상분을 연합하고 자증분은 견분과 증자증분을 연합하므로, 건분이 상분을 연합하고 자증분이 증자증분을 연합하는 경우도 말해야 했지만, 과위 4분의 새로운 상연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이를 생략한 것 같다.

14) 『四分義極略私記』(『大正藏』 71, p.470中), “問: 約一具四分何? 答: 疏有二釋. 一云, 三通緣四. 二云, 三通緣三. 初義意云, 見分緣相分見分自證分證自證分, 乃至證自證分亦爾. 重意云, 後三分皆緣四分, 故云三通緣四也. 後義意云, 見分除自緣餘三分, 證自證亦除自緣餘三分也.”

15) 『唯識分量決』(『大正藏』 71, p.446中), “問: 餘之三分皆緣一切法者有何差別? 答: 三分之別者, 前所得者親得, 餘新所得者影得, 故成差別.”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 취지에 의하면, 만약 자증분이 견분을 연하고 증자증분을 연하는 경우라면, 인위(因位)에서와 같이 직접 얻은 것[親得]이다. 만약 견분이 자증분과 증자증분을 연하는 경우라면, 지금 불과(佛果)에서 새롭게 얻은 것[新所得]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지어서 연한다.¹⁶⁾

중산은 자증분과 견분의 예를 들어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가령 인위에서 견분과 증자증분을 연하는 자증분은 과위에서는 상분도 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위(位)에서 기능하는 자증분의 차이를 밝히려면, 인위에서 얻었던 대로 견분과 자증분을 연하고, 상분을 새롭게 얻어 연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가령 인위에서 상분을 연하는 견분은 과위에서는 자증분과 증자증분도 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위에서 기능하는 견분의 차이를 밝히려면, 인위에서 얻었던 대로 상분을 연하고 자증분과 증자증분을 새롭게 얻어 연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자증분은 자증분대로, 견분은 견분대로 자분(自分)을 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측의 견해

선주는 원측의 네 가지 설 즉 견통연삼·견통연사·삼통연삼·삼통연사를 차례대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6) 『四分義極略私記』(『大正藏』 71, p.470中), “問: 餘三分皆緣一切法者有何差別? 答: 前所得者親得, 餘新所得者變影得, 故成差別. 意云, 若自證分緣見分緣證自證分時, 如因位親得, 若見分緣自證分證自證分時者, 今佛果新所得故必作影像而緣.”

둘째 원측의 설에 이르길, 이것에는 네 가지 해석이 있다. ①첫째, 4분 중 3분은 염오를 같이하는데, (이 중) 오직 견분 1분만이 능히 3분을 연할 수 있다. 이 견분을 제외하는 것은 (견분이 견분을 연한다고 하면) 능(能)과 소(所)를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②둘째, 견분이 4분을 두루 연한다. 문(文)에 배제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견분은 제외하니 상분의 소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란 거칠게 말한 것이다. 자세히 분별하면, 상분과 여타의 2분도 제외한다고 말해야 한다. 저 3분과 염오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③셋째, 3분이 모두 3분을 연할 수 있다. 각각 자분(自分)은 제외한다. 능과 소를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④넷째, 3분이 모두 4분을 다 연할 수 있다. 문에 배제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에서 배제해서 이르길, “견분은 제외하니 상분의 소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분은 이치상 능연의 용(用)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3분을 따로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¹⁷⁾

견분이 여타의 분을 모두 연하느냐, 후3분이 여타의 분을 모두 연하느냐에 따라 견통연삼과 견통연사를 한 묶음으로, 삼통연삼과 삼통연사를 한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앞의 묶음 곧 견통연삼과 견통연사를 나누는 기준은 견분이 견분을 배제하고 여타의 분들을 연하느냐, 견분이 견분을 포함해서 연하느냐이다. 이 중 첫째 견통연삼의 경우 견분을 배제하는 이유는, 견분이 견분을 연한다고 하면 능연도 견분이

17) 『唯識分量決』(『大正藏』 71, p.446中), “二測說云. 此有四釋. 一云, 於四分中三分同染. 唯見一分能緣三分. 除其見分, 能所亂故. 一云, 見遍緣四. 無文遮故. 而言‘唯除見分非相所緣’者僞相而說. 若細分別, 應言除相及餘二分. 以彼三分不異染故. 一云, 三分皆得緣三. 各除自分. 能所亂故. 一云, 三分皆通緣四. 無文遮故. 故論簡云, ‘唯除見分非相所緣. 相分理無能緣用.’ 故而不別簡三分.”

고 소연도 견분이 되어서 능(能)과 소(所)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견통연사의 경우 견분의 대상에 견분도 포함시키는 것은, 견분이 견분을 연합할 수 있어야 초월적 대상으로 향해 있던 견분을 되돌려 내재적 영역 즉 자증분과 증자증분으로 향해 이들을 연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원측이 상분은 능연의 용이 없어서 견분을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견분을 제외한다고 한 것은, 상분은 초월적 대상이기 때문에 내재적인 영역으로 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견분의 능연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이 견분을 자증하는 자증분과 증자증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능연인 견분에 자증분과 증자증분을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증분과 증자증분을 연합한다고 하면 견분도 연합한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3분이 여타의 분을 연합하는 셋째 삼통연삼과 넷째 삼통연사 이 두 경우는 견분만이 능연의 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의 2분도 능연의 용이 있는 것이므로 셋 모두 셋을 연합하는 경우와 넷을 연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견분이 상분을 연합한다고만 규정한다면, 인위에서처럼 견분이 바깥으로 향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견분이 자증분을 연합하고 증자증분을 연합한다고 새롭게 규정하려면 견분이 견분을 연합한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야 항상 바깥으로 향하려고 하는 박(縛)이 없게 된다. 자분을 제외하는 삼통연삼의 경우는 이 박(縛)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원측은 넷째 삼통연사의 경우를 상정해서 이 견해를 정설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원측의 제자 도증은 규기의 둘째 견해와 이 넷째 견해가 같은 것이고, 이것을 정설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후3분이 변연(遍緣)하기 때문에, 견분이 자증분과 증자증분을 연합

고, 자증분이 견분과 증자증분을 연합하고, 증자증분이 자증분과 견분을 연합한다면, 이 3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역시 원측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선주는 원측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 만약 3분이 모두 상연한다면 (3분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답] 원측의 설에 이르길, “겸(兼)과 정(正)의 차이가 있다. 자기의 경(境)을 정(正)으로 취하기 때문에 4분이 구분될 수 있고, 다른 경(境)을 겸(兼)으로 취하기 때문에 두루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규기가 친득과 신득의 개념을 설정해서 이 후3분을 구별한 반면, 원측은 정(正)과 겸(兼)의 개념을 설정해서 이 분들을 구별한다. 가령 견분이 4분을 모두 취하는 경우, 견분은 염위에서처럼 상분을 정으로[일차적으로] 취하고, 자증분과 증자증분은 겸으로[이차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후3분이 염위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동취이체의 경우

이상 과위에서 동체의 4분 간에 성립하는 상연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제 선주는 동취이체의 4분 간에 성립하는 상연관계를 살펴본다.

18) 『唯識分量決』(『大正藏』 71, p.446下), “問: 若三分皆相緣者何差別? 答: 測說云, 兼正有異. 正取自境四分無亂, 兼取餘境故得遍緣.”

심은 발생할 때 항상 심소들을 수반한다. 인위에서는 이 수반되는 심소들과 심은 서로가 서로를 장애하지 않는 증상연의 관계였지만, 과위에서는 소연연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규기와 원측의 공통된 견해이다.

1) 규기의 견해

선주는 규기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체의 4분 사이에는 변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동취이체의 4분 사이에는 반드시 변현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심과 심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이기에 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취(聚)는 같지만 체(體)가 다른 경우[同聚異體]의 상연은 어떠한가? [답]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규기의 설에 이르길, “①정위(淨位)의 8식취는 모두 서로 연합할 수 있다. ②동시의 심왕과 심소도 또한 동시의 심왕과 심소를 서로 연합하고 스스로 연합할 수 있다. ③저 공능(功能)이 두루 영상을 변현하기 때문이다. ④식(識)의 자증분과 상응법의 견분은 서로 연합하고, 자기의 견분을 연합한다. 여타의 정위(淨位)의 심소의 뜻도 이 예와 같다. ⑤또 혹은 능히 저 상분을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만약 저 영상을 변현하지 않는다면 일체를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규기는 먼저 ①“정위(淨位)의 8식취는 모두 서로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한 뒤, ②“동시의 심왕과 심소도 또한 동시의 심왕과 심소를 서로 연합하고, 스스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렇게 심왕과 심소 모두

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③“심과 심소의 공능들은 두루 영상을 변현하기 때문이다.” 심과 심소가 서로 소연연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심과 심소는 서로 상응하면서도 서로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규기는 ④와 ⑤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상연관계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⑥에서 심과 심소가 서로 영상을 변현해야 일체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매듭짓고 있다.

④와 ⑤의 예를 다시 보면서 서로 변현한다는 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④“식의 자증분과 상응법의 견분은 서로 연합하고, 자기의 견분을 연합한다”는 규기는 심과 심소를 각각 식과 상응법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나서, 심의 자증분은 심의 견분을 연합하기도 하지만 심소의 견분을 연합하기도 하고, 역으로 심소의 견분은 심의 자증분을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취이체 4분의 경우를 따져보면서도 동체 4분의 경우를 놓치지 않으면서, 심의 자증분은 심소의 견분을, 심소의 견분은 심의 자증분을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심소의 견분에 맞추었지만 이어서 “여타의 정위의 심소의 뜻도 그러하다”고 했으므로, 심의 자증분에 대해서 심소의 견분뿐만 아니라 여타의 자증분과 증자증분도 상연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 자증분이 심소의 견분뿐만 아니라 자증분과 증자증분도 연합할 수 있고, 역으로 심소의 견분뿐만 아니라 자증분과 증자증분도 심의 자증분을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의 자증분과 심소의 견분·자증분·증자증분의 상연관계에 대해 말한 뒤 심소의 후3분은 심의 상분을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물론 심의 후3분이 심소의 상분을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규기에 의하면 정위에서 동체 4분의 경우 후3분이 각각

모두 4분을 연합할 수 있다 했으므로, 동취이체 4분의 경우 심왕의 후3분이 각각 모두 심소의 4분을 연합할 수 있고, 역으로 심소의 후3분이 각각 모두 심왕의 4분을 연합할 수 있다.

2) 원측의 견해

선주에 따르면, 규기는 심의 후3분이 각각 자분을 포함해서 여타의 분들을 연합할 수 있다는 삼통연사를 동취이체의 4분에도 확장해서 이해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원측은 어떤 설을 제시했다고 보았을까? 원측은 유견연사(唯見緣四)와 삼개연사(三皆緣四)라는 두 가지 설을 제시한다.

둘째 원측의 설에 이르길, “이것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오직 견분만이 4분을 연합한다. 둘째, 3분이 모두 4분을 연합한다.¹⁹⁾”

유견연사는 ‘오직 견분만이 4분을 연합한다’는 설이고 삼개연사는 ‘후3분이 각각 4분을 연합한다’는 설이다. 이는 각각 앞에서 동체 4분의 상연관계를 말할 때 원측이 들었던 네 가지 해석 중 둘째 견통연사, 넷째 삼통연사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유견연사(唯見緣四)는 심의 후3분 중 심의 견분만이 4분을 모두 연합할 수 있고, 역으로 심소의 후3분 중 심소의 견분만이 심의 4분을 모두 연합할 수 있다는 설이다. 그렇다면 동체의 4분에 의거해서 보는 경우 견통연사 즉 견분만이 4분

을 모두 연합할 수 있다는 설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삼개연사(三皆緣四)는 심의 후3분 중 견분뿐만 아니라 자증분과 증자증분도 각각 심소의 4분을 모두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역으로 심소의 후3분 중 견분뿐만 아니라 자증분과 증자증분도 각각 심의 4분을 모두 연합할 수 있다는 설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체4분에 의거해서 볼 경우 삼통연사 즉 후3분이 4분을 모두 연합할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주는 원측이 한 대로 나열할 뿐이어서 어떤 설이 원측의 설인지 판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동체의 4분을 다룰 때 네 가지 설을 열거하고 도종의 판정을 들어 네 번째 설이 원측의 정의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도 삼통연사에 기초하는 삼개연사 학설이 원측의 설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렇다면 가능한 학설의 열거가 다를 뿐이지 최종적으로 정설로 삼고 있는 학설은 규기나 원측이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과위에서는 변지(遍智)를 행사하려면 변연(遍緣)이 성립해야 하므로, 동체4분의 경우에서도 동취이체의 경우에서도 후3분이 각각 사분을 모두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IV. 결어

선주는 『분량결』 「사분상연문」에서 인위와 과위에서의 4분의 상연관계를 다루고 있다. 사실, 4분의 상연 운운하게 되면 인위에서의 상연

19) 『唯識分量決』(『大正藏』 71, p.446下), “二測說云. 此有兩釋. 一云, 唯見緣四. 一云, 三皆緣四.”

20) 富貴原長信, 『唯識の研究』-三性と四分(東京: 國書刊行會, 1988), p.280.

관계, 즉 자증분과 증자증분이 서로 연하는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 문(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위에서의 자증분과 증자증분의 상연관계가 아니다. 인위에서는 4분의 분함이 성립하기 때문에 특정한 분은 특정한 분을 연할 수밖에 없지만, 과위에 오르게 되면 이 관계는 달라진다. 선주는 선대의 논사들인 규기와 원측을 따라 과위에서의 4분의 상연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먼저 인위에서의 4분의 상연관계를 짚어본다. 동체와 동취이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동체의 4분 간에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심과 심소의 동취이체의 4분 간에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인위에서는 동체는 동취이체든 4분의 상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과위에서의 상연관계를 이와 대비해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과위에서는 동체든 동취이체든 4분의 상연관계가 모두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위에서의 4분의 상연관계를 따져볼 때 무엇을 주체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능연작용을 하는 것은 견분 이외에도 자증분과 증자증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능연작용 중 견분을 주체로 삼느냐, 견분을 포함하는 후3분을 주체로 삼느냐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자증분이나 증자증분을 견분처럼 따로 떼어놓고 주체로 삼을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자증분이나 증자증분은 견분을 자증하는 것들로서 본다는 작용인 견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견분이 주체가 되느냐, 견분을 포함한 후3분이 주체가 되느냐 하는 두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측은 견분이 주체가 되는 견통연삼(見通緣三)과 견통연사(見通緣四), 그리고 후3분이 주체가 되는 삼통연삼(三通緣三)과 삼통연사(三通緣四) 설을 내놓게 되

는 반면, 규기는 견분이 주체가 되는 경우를 생략하고 후3분이 주체가 되는 삼통연삼과 삼통연사 설을 내놓게 된다. 원측이든 규기는 제시한 설의 수가 다를 뿐 두 논사 모두 삼통연사 설을 정설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동취이체 4분의 경우 즉 심과 심소를 서로 연하는 경우에도 규기는 심과 심소가 모두 서로 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반면, 원측은 ‘오직 견분만이 4분을 연한다’는 유견연사(唯見緣四) 그리고 ‘후3분이 각각 4분을 모두 연한다’는 삼개연사(三皆緣四) 설을 내놓는다. 규기는 동체의 4분을 다룰 때 후3분이 4분을 모두 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이미 정설로 삼았기 때문에 동취이체의 4분을 다루는 자리에서는 따로 견해를 나누어 내놓지 않고 후3분이 각각 자분(自分)을 포함한 모든 분을 모두 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반면, 원측은 동체의 4분을 다룰 때 제시한 네 가지 견해에 맞추어 두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이 경우는 원측이 무엇을 정설로 삼는 것인지 선주와 도종의 말로부터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가 도종이 말한 것처럼 삼통연사를 정설로 삼은 것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도 삼개연사를 정설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규기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선주에 의하면, 인위에서는 4분마다 각각 분함이 있어서 4분을 서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이 분함이 없는 과위에서는 4분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를 규기와 원측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정설로 삼고 있는 삼통연사와 삼개연사 모두 후3분이 각각 자분을 포함한 모든 분을 연한다고 하는 견해이므로, 그들은 4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규기는 친득(親得)과 신득(新得)의 개념을 끌어들이어 인위와 과위에서의 4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령 견분이 상분을 연하는 경우는 인위에서처럼 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친득이지만, 이 견분이 자증분을 연하는 경우는 염위에서와 달리 새롭게 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득이다. 이런 방식으로 견분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증분과 증자증분과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규기의 생각이다. 그런데 원측은 규기와 달리 정(正)과 겸(兼)의 개념을 끌어들이어 이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령 견분이 인위에서와 같이 상분을 연할 때는 정(正)이지만, 견분과 자증분과 증자증분을 연할 때는 겸(兼)이기 때문에, 인위와 과위에서의 4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원측의 생각이다.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게 되면, 가령 견분이 상분을 연하는 정(正)의 경우와 자증분이 상분을 연하는 겸(兼)의 경우 등에서처럼 인위와 과위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원측의 제자인 도증과 규기의 제자인 혜소 사이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²¹⁾

21)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이 논쟁의 내용과 성격을 밝힐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彌勒, 『瑜伽師地論』, 『大正新修大藏經』 第30卷.
- 護法等, 『成唯識論』, 『大正新修大藏經』 第31卷.
- 窺基, 『成唯識論述記』, 『大正新修大藏經』 第43卷.
- 慧沼, 『成唯識論了義燈』, 『大正新修大藏經』 第43卷.
- 善珠, 『唯識分量決』, 『大正新修大藏經』 第71卷.
- 仲算, 『四分義極略私記』, 『大正新修大藏經』 第71卷.

2. 단행본류

- 深浦正文, 『唯識學研究』上, 下 (京都: 永田文昌堂, 1954)
- 富貴原長信, 『唯識の研究』—三性と四分(東京: 國書刊行會, 1988)
- _____, 『日本唯識思想史』(京都: 大雅堂, 1934)
- Dan Zahavi, *Husserl's Phenomenolog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Drummond, J.J.(2003), *The structure of intentionality*, In D. Welton(ed.) *The New Husserl—A Critical Reader* (pp.65-92),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Francis H. Cook, *Three Texts on Consciousness Only*, (California: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1999)
- 하루히데 시바 저, 박인성 역, 『유식사상과 현상학』, (서울: 도서출판 b, 2014)

- 손 겔러거, 단 자하비 지음, 박인성 옮김, 『현상학적 마음』, (서울: 도서출판 b, 2013)
- 후카우라 세이분 저, 박인성 역, 『유식삼십송풀이』, (서울: 운주사, 2012)

3. 논문류

- 박인성, 「사분의극락사기(四分義極略私記) 능연소연문(能緣所緣門)의 연구」, 『선문화연구』제16집, 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4)

A Study of the Chapter on the Co-objectifying of the Four Parts of the Mind 四分相緣門 in Zenju's 善珠 Determination of the Four Types of Consciousness 唯識分量決

PARK, In-sung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hapter on the Co-objectifying of the Four Parts of the Mind 四分相緣門 in Zenju's 善珠 the Determination of the Four Types of Consciousness 唯識分量決*. In this case, co-objectifying means that each of the four parts of the mind 四分 objectify each other part. In the *hetu*-stage, there is no co-objectifying relationship except for between the self-consciousness 自証分 and the awareness of the self-consciousness 証自証分. However, in the *phala*-stage there are two types of co-objectifying relations, which is divided into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lone' 同體四分 and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nd mental factors' 同聚異體四分.

In the case of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lone 同體四分, Kuiji 窺基 presents two kinds of doctrines, and Woncheuk 圓測

four kinds of doctrines. In the case of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nd mental factors 同聚異體四分, Kuiji presents a view that each of the latter three parts 後三分 objectify all of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nd mental factors. Woncheuk presents two views: one is the view that the seeing part objectifies all the parts within the mind and mental factors 見通緣四, and the other the view that each of the latter three parts 後三分 objectify all of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nd mental factors.

Dojeung 道証, the disciple of Woncheuk, endorses the view that each of the latter three parts objectify all the four parts in the case of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lone, and that each of the latter three parts objectify all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nd mental factors. From this point, we can come to the conclusion that Kuiji and Woncheuk claim the same doctrine.

In order to elucidate the difference of the four parts of the mind between the *hetu*-stage and the *phala*-stage, Kuiji invents new terms called familiarly gaining 親得 and newly gaining 新得, while Woncheuk creates the terms of primary gaining 正 and secondary gaining 兼.

Keywords

co-objectifying 相緣,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lone 同體四分,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nd mental factors 同聚異體四分,
each latter three parts objectify all the four parts,
each latter three parts objectify all the four parts within the mind and mental
factors, familiarly gaining 親得 and newly gaining 新得,
primary gaining 正 and secondary gaining 兼

✎ 투고일자 2014.8.4 | 심사일자 2014.8.30 | 게재확정일자 2014.9.4